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희경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보도자료

2022. 9. 30.(금)

제 목

라임펀드 연계 무자본 M&A 및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 1심 중형 선고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전일(9. 29.) 서울남부지법(합의14부)에서 라임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아 여러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, 신규사업 진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한 무자본 M&A 세력 및 사기적 부정거래사범 주범(1년간 도피 중 검거됨)에 대해 징역 20년 및 벌금 30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되었음

I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- 피고인: AOO(상장사 인수·시세조종 세력 지휘)
- 주요 범죄사실 요지
 - 2017. ~ 2019.경 라임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주식 대량 매집 및 신규사업 진출, 적대적 M&A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여 20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득 **【자본시장법위반】**
 - 2017. ~ 2019.경 허위용역 계약, 허위직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인 법인자금 등 약 230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 **【특경법 위반(횡령) 등】**

II

수사 및 공판 경과

- '20. 4. 피고인 체포영장 발부(지명수배)
- '21. 3. 30. 피고인 검거
- '21. 4. 16. 구속 기소(A사 시세조종, 사기적 부정거래 등)
- '21. 7.~8. 추가 범행 병합 기소(2회)
- '22. 9. 29. 1심 판결 선고
 - 선고내용: 징역 20년, 벌금 300억 원(보고의무 위반 일부 무죄)

III

참고 사항

- 라임사건 수사 중 펀드자금이 소위 '기업사냥꾼'인 무자본M&A 세력들에게 투자되었고,
 - 무자본 M&A 세력들은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재무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인수한 뒤,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(AI), 가상현실(VR),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, 보유주식을 되팔아 소위 '엑시트(EXIT)'를 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
-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침으로써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범죄인바,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,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